

## 한국가설 제조업 연합회

회장:호리코리아(주) 대표이사 김진홍 TEL:055-342-5651 FAX:055-342-5654 HP:010-3851-3717  
총무:태홍철강공업(주)대표이사 심병찬 TEL:032-814-7011 FAX:032-814-5284 HP:010-6342-7011

문서번호 : 연-2014-0801

수 신 : 한국가설협회 회장, 월강가설자재 제조업체 대표이사

참 조 : 한국가설협회 시험연구소 소장

제 목 : 불법가설자재 유통에 관한 현황조사에 대한 조치요청 및 협조건

1. 가설협회와 관련제조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설협회와 제조업체의 상호발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조업협외체인 가설제조연합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가설재 근절에 대하여 고객만 탓할 것이 아니고 제조업체가 스스로 변화하여 양질의 제품만을 공급 하자는 취지로 시작하고 있지만 동북제조업체의 절반이하의 참석으로 지지부진합니다. 미래지향적인 발전적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참여하지 않는 사유로는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 봐야 판매가 되지 않고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일부업체에서는 살아 남기위해서 규격미달품인 저가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가설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도 않고 성능인정도 받지 않는 아주 소규모 영세기업에서 인정마크를 넣어서 불법으로 제조하여 판매한 후 문제가 생기면 문을 닫고 다른 이름으로 하여 다시 제조 판매하는 행태도 있습니다. 가설업계의 암 같은 존재는 이번기회에 제거합시다. 앞으로 제조연합회도 앞장서서 고발하겠습니다. 이런 불법제조업체는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보유한 불법제품은 폐기처리 되어져서 다시는 불법제조업체가 제기 할 수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4.그리고 계속해서 근절되고 있지 않는 또 한 가지 원인은 저가품만 찾는 고객 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규격과 성능에는 관심이 적고 인정마크만 있고 가격만 싸면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고 여기에 일부 몰지각한 제조업체가 편승하여 모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또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 좋지 않아서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입해봐야 혼입되어져 효과도 없고 또 회수 시에는 자신의 제품이 회수 되지 않는다는 등 협회 설립 이후 18년 동안 계속 같은 이론만 반복하고 있는 고객이 있는 한 절대 불법가설재 는 근절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가설협회는 현실을 인정하고 분석하여 조치바랍니다. 불법제품 자체가 건설현장에서 사용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5.앞으로 가설협회에서는 신규등록시에 제대로 된 업체가 등록되도록 하고 공 장심사시에도 수거검정이 확실하게 되도록 치밀하게 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생산 판매한 제품이 검정 받은 제품과 동일한지 사후점검도 꼭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 물론 3번 4번 항목의 경우 가설험회사 시험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관행처럼 이루어져 현재 막대한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자산을 단시일 내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현실(뜨거운 감자)을 피하지 말고 단계적 안을 제시하여 협의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추락해방지를 위하여 시스템비계 사용을 권장하는 클린사업과 유사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강력한 법적체계를 병행 할 수 있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분석하여 단계적 안을 갖고 재정지원을 요청하여 주십시오.

7. 불법제조사제와 자체적으로 조사한 규격과 성능시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어 직접 재확인한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불법제조사제(일본과 한국 인정 마크를 동시에 생산한 사례)보고  
상기 권은 한국에서 제조한 규격미달제품에 일본과 한국가설험회의 마크를 동시에 각인하여 판매한 사례로 일불가설험회에 고발되어 일불가설험회의 월간지에 사진까지 공고되어 국가를 망신시킨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동일제품을 2007년부터 다시 사명과 대표자를 바꾸어 제조한 사례임.  
(2002년 제품과 2007년 제품의 사진과 규격내용 및 시험결과표 첨부)

2. 일부 제품(4개사)수거 후 규격검사와 성능시험결과 내용보고  
규격에서 제품두께를 10%정도 마이너스 시킨 제품도 있으며 성능시험결과 당연히 좋지 않으며 80%수준 이하의 제품도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제사용가 설계 성능기준의 설정과 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제품은 언젠가는 전체를 폐기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시험내용참조)

@별첨1,2의 내용은 조치할 수 있는 수신처에만 통보하고 재확인(현장수거검정)까지는 가결사항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불법가설제 제조업체에 드리는 글 (세월호의 교훈을 잊지 맙시다)-  
불법가설제 제조업체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규격과 성능미달제품을 생산하여 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회사명까지 각인하여 무슨 배짱으로 유통시키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문제발생 시에 그 책임이 한꺼번에 돌아 올 것입니다. 사용업체는 어느 정도 알고 구매를 했을지는 몰라도 각인된 인정마크를 보고 구매를 했지 싹 제품이기에 때문에 성능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한 적도 없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문제시에는 100%당신의 책임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미 오래전부터 제조물 책임법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으로 개발도상국의 미달 저가품이 몰려와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부터라도 공정하게 물을 갖고 경쟁하고 제대로 만들고 제 값을 받으십시오.

\*\*\*가설험회의 시험연구소는 물론 제조연합회에서도 불법가설제 제조사례 고발을 접수합니다.\*\*\*

2014년 8월 13일

## 한국가설 제조업연합회 회장

\*고발사항이나 기타사항은 회장이나 총무에게로 연락 바랍니다. (제조연합회 총무 : 심병찬 드림)